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 간호 가치 높이는 위대한 기회

ICN, 한국 간호법 제정 지지 -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 촉구

2020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이다. 간호전문직의 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매우 특별하고 위대한 기회다.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과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해 간호에 투자해야 한다.

ICN은 각국 정부에게 촉구했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전문직을 지원하고, 간호사의 안전한 근무환경과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라. 이는 환자결과를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간호협회는 낄싱 나우 캠페인을 통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다. 낄싱 나우 한국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으며,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정책TF가 설치됐고, 국회에서 간호법안 및 간호·조산법안이 발의됐다.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세계로 확산됐다. WHO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사무총장이 대한간호협회 홍보부스를 직접 방문해 지지 서명을 했다. ICN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했고, 세계 간호사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낄싱 나우 나이젤 크리슈 공동위원장이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 노벨평화상 후보추천

ICN, 공식 지지 표명 ... WHO 사무총장 서명 동참

대한간호협회는 국제간호협회 학술회의(ICN Congress)가 열린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간호사를 지지하는 내빈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총 2904명이 서명을 했다.

[사진 왼쪽] 6월 30일 오전 홍보부스를 방문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오른쪽)이 서명을 한 포스트잇을 붙

였으며,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아넬트 케네디(Annette Kennedy) ICN 회장(가운데)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왼쪽)이 함께 지리했다.

[사진 오른쪽] 아넬트 케네디 ICN 회장은 6월 27일 저녁 홍보부스를 찾아와 서명을 했으며, ICN 차원에서 적극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천위원장이 김홍식 전 국무총리(왼쪽)가 아넬트 회장을 맞이했다.

ICN 대표자회의 및 학술회의

간협, 정책활동 적극 펼치며
한국 간호 위상 높여

대한간호협회가 국제간호협회(ICN) 이사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세계 간호무대의 중심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주목받았다.

대한간호협회는 '2019 국제간호협회 대표자회의(ICN CNR) 및 학술회의(Congress)'에 참석해 간호현안 관련 정책활동을 추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대표자회의는 6월 25~27일 열렸으며, 학술회의는 6월 27일 오후 개회식을 시작으로 7월 1일까지 진행됐다. 7월 2일에는 보건의료기관 견학이 이뤄졌다.

한국 대표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김영경 제2부회장이 참석했다. 특히 ICN 제3부회장을 맡고 있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국제·KICN 간호리더십센터위원장이 임원으로서 개·폐회식과

대표자회의에서 역할을 다했으며, 기조강연 진행자로 활약해 한국 간호사의 자긍심을 높여줬다.

대표자회의에서 ICN은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힘을 실어줬다.

아넬트 케네디(Annette Kennedy) ICN 회장은 "지난해 11월 1일 열린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 선포식 및 낄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되고, 보건복지부 내 간호전담부서가 설치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월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TF가 설치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ICN이 적극 지지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낄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식에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대한간호협회는 낄싱 나우 캠페인을 통해 간호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번 대표자회의 및 학술회의에서 대한간호협회는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

쳤다. 두 간호사의 삶을 담은 홍보영상이 대표자회의 및 학술회의 기조강연에서 각각 상영됐다. 두 차례 모두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으며 후보추천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두 간호사의 고귀한 삶을 알리기 위한 홍보부스를 학술회의 기간 동안 운영해 지지서명을 받았으며, 6월 28일 '나이팅게일의 밤' 프로그램을 열어 세계 간호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홍식 전 국무총리가 6월 29일 기조강연자로 초청받아 세계 간호사들에게 후보추천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한국과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북유럽간호사연맹(Nordic Nurses Federation) 5개국 간호협회 대표들을 만나 간호 및 문화교류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한·중·일 리더스 미팅을 갖고 2020년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6차 한·

간호사 없이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할 수 없어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연설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국제간호협회(ICN) 학술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간호사 교육과 근무환경 개선에 각국 정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과 보편적 건강보장(UHC)은 간호사 없이 달성할 수 없다. 간호사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가 국제간호협회 학술회의(ICN Congress)에 참석해 간호사들을 지지하고 격려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에게 건강에 투자할 것을 촉구한 후, 6월 30일 싱가포르 ICN 학술회의 기조강연을 찾아와 연설했다. 그의 방언에 모두가 일어선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환영했으며, 아넬트 케네디 ICN 회장은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강력한 지지자가 이곳에 오셨다"고 소개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연설을 통해 "전 세계 간호사들의 에너지와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이 같은 간호사들의 힘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는 간호사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에서 더 나아가 건강과 관련된 사회 각 분야의 이슈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간호사는 이러한 변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인력이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다"고 밝혔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간호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간호사를 확충하는 것은 비용을 쓰는 일이 아니라 양성평등과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들은 더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고, 정당한 근무조건과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며 "모든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세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자"고 말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내년은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며, 이를 기념해 WHO는 2020년을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지정했다"면서 "각국 정부는 간호사들이 질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고, 좋은 근무환경에서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ICN은 전 세계 간호사들을 하나로 결집하고, 간호사들이 해내고 있는 놀라운 일들과 그 가치를 잘 알고 있다"며 "ICN은 보편적인 건강관리, 케어의 질, 비감염성질환, 항생제 내성 등 다양한 보건 이슈와 관련해 WHO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주혜진 기자 hjoo@

중·일 간호학술회의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간호교육연맹(NLN) 대표들을 만나 임상현장의 교육전담간호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ICN은 이번 대표자회의와 학술회의를 통해

WHO가 2020년을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간호전문직의 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위대한 기회의 시간을 붙잡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2019 ICN 학술회의' 싱가포르에서 열려

한국 간호사 100여명 참석 ... 간호교육·연구·실무 교류

[싱가포르=주혜진 기자] 2019 국제간호협회 대표자회의 및 학술회의(ICN Congress and CNR 2019)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전 세계 간호사들이 모여 교류하는 학술회의는 'Beyond Healthcare to Health' 주제로 6월 27일~7월 1일

최됐다. 이에 앞서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참석하는 대표자회의가 6월 25~27일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 주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교육, 양성평등, 빈곤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결정요인들에 대해 간호사들이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술회의에는 세계 120여개국 5000여명의 간호사들이 참가해 간호의 최신 흐름과 비전을 호흡하면서, 현안 이슈들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 열린 논의를 펼쳤다. 한국에서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김영경 제2부회장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간호대학 교수,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개회식은 6월 27일 오후 6시(현지시각) 컨벤션센터 5층에서 열렸다. 각국 간호협회 대표단이 고유 민속의상 차림으로 입장하는 퍼레이드가 진행되면서

막이 올랐다.

개회사를 한 아넬트 케네디(Annette Kennedy) ICN 회장은 "올해 ICN은 창립 120주년을 맞았으며, 2020년은 WHO가 지정한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라면서 "이처럼 특별한 기회를 꼭 잡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며, 간호사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이 대다수인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바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면서 "간호사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전반적으로 더욱 나아지게 할 수 있고, 이는 여성을 위한 더 나은 교육, 가정과 지역사회의 더 나은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싱가포르 첫 여성대통령인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 대통령은 "세계 간호사들의 축제의 장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간호사는 보건의료의 발전을 견인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간호사에 대한 지위와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면서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영웅이라면 100명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바로 간호사"라고 강조했다.

환영사를 한 린 스위 히아(Lim Swee Hia) 싱가포르간호협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간호사들을 환영한다"면서 "변화의 과도기에 선 지금 혁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고, 누구나 건강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경험과 전문지식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에는 간 김 용(Gan Kim Yong)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 등 내빈이 참석했다. 김도민 간호혁신 및 정책영향력상은 중동지역 에이즈 퇴치에 기여한 엘리아스 알 아라지(Elias Al Aaraj) 에이즈퇴치아랍지역네트워크 대표, 파트리샤는 존슨앤존슨이 받았다.

개회식에 이어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나라 싱가포르를 보여주는 문화공연이 진행됐다. ICN 120주년을 자축하며 전시부스 개막 리셉션이 열렸다.

6월 30일 나이팅게일국제재단이 시상한 국제간호대상은 조이스 피츠패트릭(Joyce J. Fitzpatrick) 케이스 웨스턴 리저드대 간호대학 교수가 받았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간호교육·연구·실무분야에서 간호사들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기조강연, 메인 세션, 킥오프 세션, 심포지엄, 네트워크 미팅, 포스터 발표, 정책카페, 전시회 등이 진행됐다.

폐회식은 7월 1일 오후 4시 컨벤션센터 5층에서 열렸다. 세계 간호사들이 2021년 ICN 학술회의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대대원의 막이 내렸다. 이어 7월 2일에는 싱가포르 보건의료기관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